

지금 이 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_pighaedlab

TIME NOW

2022. 6
두번째



손승범

<믿음> 2인전_space55, 5월

오종원

5월, 광주 방문기

석민정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_2

이규환

작은 씨앗들

이은우

작은 것들에게

피그헤드랩

<Insert Coin> 2인전_6. 4~18

Pighead Lab



앞 표지 :

<선진조국의 선봉> 전두환이 1982년 11 공수여단에 수여한 기념석. 현재 광주 상무대 영창체험장 입구에 비치되어 방문객들이 밟고 다닐 수 있게 되어있다. 11공수여단은 광주에 투입되었던 부대 중 하나이다.

뒷 표지 :

2018년 5월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진행된 폐포먼스 중

사진_ 오종원

지금 이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 _ pighaedlab

TIME NOW

<지금 이시각>은 문화예술, 특히 창작과 관련된 웹데이터 아카이브를 지향합니다. 근래의 이슈인 메타데이터 시대에, 창작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릇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담고 보존하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존 가치를 가정하고 이에 맞는 알찬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다소 뻔한 이야기 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아놓으면 언젠가 시대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엮어 질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겐 그 시기 그 세대의 생각들을 알 수 있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고 긍정적 기능을 바라게 됩니다. 참여자들 또한 농사를 짓듯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분명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덤이지요. 이런 생각들로 근 몇 년간의 프로젝트는 아카이브와 그것을 담는 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시각> 프로젝트가 과연 얼마나 지속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에 조금 더 그런 기대감을 품어보게 됩니다.



<믿음> 展 손승범, 황규민 2인전_space55, 5월

손 승 범
시각예술가 /
팀 중구난방

전시명: 믿음(しんじん, Belief) "

참여작가 : 손승범, 황규민

장소: 스페이스55 (서울 은평구 증산로19길 9-3)

기간: 2022년 4월 30일(토)부터 5월 29일(일)

관람시간: 12:00~19:00

기획: 안종현

믿음을 주제로 손승범, 황규민의 2인전이 지난 4월 30일 새절역 인근에 위치한 space55에서 열렸다. 동양화(한국화)를 전공한 두 작가는 한지에 스며드는 먹의 농도와 속도가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와 맞았다. 이들은 자신들 눈에 들어온 대상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기도 한다.

촬영 : 스페이스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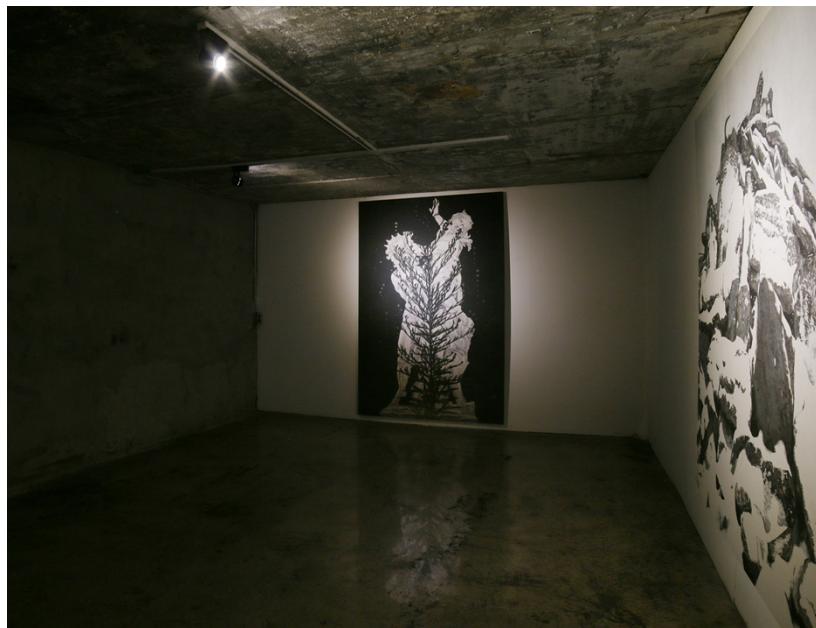


그들이 사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사진에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 존재한다. 인간의 수행적 행위로 인한 흔적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도상화된 믿음의 대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작가의 눈을 사로잡은 어떤 대상(이미지)은 동양화(한국화)라는 매체 안에서 표현된다.





지금 이시각 2022. 6





5월, 광주 방문기

오종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5월의 광주는 방문하기 참 좋은 곳이다. 넉넉잡고 서울에서 3~4시간 정도. 만약 누군가에게 광주행을 권한다면 못해도 2박3일은 잡으라 할 것이고 매우 여유가 나는 사람이라면 전주영화제를 보고나서 한번에 내려가는 코스를 잡으라고 할 것이다. 다만 전주영화제는 보통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하고, 광주의 행사는 5월 중순이다 보니 일주일 내외 애매하게 텁이 생긴다. 여유가 나면 인근 지방도 돌면서 전라도 먹거리 투어를 권하겠지만 대개는 그럴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 먹거리 투어. “뭐하러 서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먹냐”는 얘기를 들은 적 있고 이제 어디든 식당들은 열추 상향평준화 되어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전라도 음식이 칭찬으로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굳이 한정식까지 아니라도 한상 가득인 백반부터 시작해서, 푸짐한 뼈해장국, 대접 가득 나오는 순대국, 별미인 상추튀김. 그리고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주먹밥이 떠오른다. 처음부터 518을 얘기하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광주의 문화라면 문화일 수 있지 않을까. 깨소금 정도로만 버무려진 주먹밥. 민주화 운동 당시와 지금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한 입 입에 물면 뭔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저 신기했고 나중에는 참 씹쓸한 그런 맛이었다.

광주에서 나눠주는 주먹밥 (2018)



다시 5월의 광주를 떠올린다면 장미꽃이 먼저 생각난다. 이 집 저 집에 장미나무가 한가득 피어 있고 그렇게 햇살이 따뜻할 수가 없다. 물론 어디든 5월이란 계절이 어찌 안 좋을 수 있겠나 하지만, 광주는 구도심 기준으로 조금만 걸어 나와도 아파트 보다는 주택이 많아 집집마다 장미덩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문부터 낮은 담벼락 안쪽으로 흰 장미, 빨간 장미가 영걸여 있어, 햇살을 받으면 그렇게 참 보기 좋을 수가 없다. 대체로 5월이면 덥다고 느껴질 정도라 반팔입고 산뜻하게 돌아다니기 좋다. 내 경우에는 518에 대해 궁금해서 내려갔으니 처음에는, 이렇게 날도 좋고 장미가 아름다울 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다니! 라면서 괜히 욱하는 마음도 무척이나 컸었다. 지금은 그렇게 까지 역정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햇빛 찬란한 골목길에 영걸어진 장미들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묘한 감정에 빠져든다. 표현 그대로 슬픔을 머금은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렇게 날에 취해 감정에 취해 커피 한잔 들고 시장 골목길도 기웃해보고, 그러다 구 도청 광장으로 나오면 큰 무대가 보이고 학성기 소리가 울려 퍼진다. 금남로를 거슬러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과 현수막, 무엇인가 잔뜩 준비된 소무대들, 취재진을 보다 보면 시끌벅적한 지역 축제 같은 느낌도 있다. 518 전야제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광주는 작년에도 방문하긴 하였지만, 전야제를 보러 온 것은 간만이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518 재단은 행사를 축소하여 진행하였고 그 사이 대통령이 한 차례 방문하기도 했었다. 나는 뉴스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 광주를 방문하며 사진과 영상을 찍어왔던 나에게 나라의 수장이 광주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은 손꼽아 찍고 싶은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518재단에 전화까지 하여 일정을 재확인한 터였다. 더욱이 그 전 해, 총리가 방문하였을 때에는 하필 또 신분증을 놓고 와 멀리서만 구경한 기억이 있었다. 19대 정부는 전반적으로 광주에 대해 할 말과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기대감이 컸었고 꼭 한번은 찍어보고 싶었었다. 물론 이제야 드는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지만.

아무튼 간만에 광주에 방문하게 되면서 나라의 대표자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그 바뀜이 광주 5.18 진행 측 입장에서는 다소 반갑지 않을 터라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은근한 기대감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행진이 금남로 따라 무대 앞에 들어서자, 행사 사회자가 구수한 말투로 속상함을 털어놓는다.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특정 정당을 주축으로 한 진영은 모두가 죽기 전까지는 그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그런 만큼 아직까지 광주의 이야기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이든 역사적인 관점이든 혹은 창작과 관련된 이야기이든.

역사를 작업의 주제로 삼아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작업하면 광주 비엔날레에서 불러주는 것 아니야?” 라며 놓담을 하게끔 일명 비엔날레 작업이라 불리우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다. 광주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에는, 마음 한편으로 나도 꿀에 작가라고 더 큰 이야기, 더 큰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있었다. 내가 본 데로라면 2000년대 이후 대형작업들이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규모만이 아니라 거대하고 깊은 서사와 관찰을 바탕으로 장기 프로젝트 단위의 작업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의례 그런 작업들을 비엔날레급 작품이라 부르고는 하였다. 2014년 임민숙 작가의 작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복잡한 배경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시기 그런 작업들이 참 멋있게 여겨졌던 것 같다. 나 역시도 그리하여서 16년 말 탄핵 운동 당시 우연히 방문한 광주에서 그 느낌을 받게 되었고 나도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군뜩같았다. 그렇게 시작한 인연으로 홍콩까지 가게 된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며 썩 잘 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만… 언젠가 더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산수싸리라는 전시장을 방문하였다. 정유승 작가의 개인전 <물, 피, 염>을 보러 간 것이다. 해당 전시와 작품은 광주의 5.18,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품의 배경을 간단히 언급하면 5.18 상황 당시, 광주 황금동의 일약 ‘술집여성’들이 기여한 이야기를 담았다. 황금동 여성들 역시 시민으로써 금남로에 나섰으며 주먹밥을 날렸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가 피를 내놓았다고 한다. 작가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여성들은 앞다투어 자기 피를 뽑아 달라 하였고, 병원에서는 차마 혹시 모를 병이 있을지 몰라 말렸다는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게 육성으로 들으면 현장감이 나서 참 마음이 그러하였고 작업을 관통하는 의미들을 떠올려 보게 된다. 사실 <물, 피, 염>의 전신인 2018 광주 비엔날레 당시, 마찬가지로 작가는 <황금동 여성들> 이야기를 작업으로 풀어냈었지만 그때는 아쉬움이 커졌다. 작업들도 작업대로 였지만 그것을 여러가지로 구현해 놓은 것이 젊은 작가의 날 것 같은 느낌이라 당시엔 혹평을 하였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진정성이었다. 당시 약상자들을 토대로 황금동의 지도를 그리거나 하는 작

<물, 피, 염> 전시 전경



업들을 보면서 작가가 해당 이야기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4년만에 본 전시는 멋들어지게 숙성되어 있었다. 꽉 익은 맛은 아닌 적당히 억센이 쭉인 느낌인데, 20대였던 작가가 30대로 넘어가서 가지는 시선의 익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제일 좋았던 것은 마찬가지로 진정성이었다.

작업에 전반적으로 작가는 인터뷰를 중요하게 사용하였는데 거기에는 ‘생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생이라고 해서 그냥 육성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터뷰를 진행하는자의 마음과 인터뷰 대상자의 슬픔이 대체로 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되어 담겨 졌다는 의미이다. 이런 살아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해보면 해볼수록 결코 쉽지 않다. 창작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됨에 있어 한끝차이로 위선의 입장이 되기에 너무 좋고, 조금이라도 그런 티가 나면 진정성에 대해 믿음을 잃기 좋다. 그런 지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적당히 겸손한 자세를 취했고 이는 앞 세대의 이야기를 뒷 세대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충분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518과 관련된 작품들을 봐왔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작업들은 얼마 안된다고 본다. 평판이 자자한 대형작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그런 관점에서, 나는 전일빌딩이 참 아쉽다고 생각한다. 마침 산수짜리 관람을 마치고 간 곳이 전일빌딩이었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리모델링 하고 오픈하였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변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역사의 산실이어야 할 곳이 컨벤션 센터처럼 변해버린 느낌이었다. 물론 전일빌딩 위치가 목이 좋은 만큼, 영원히 접근을 막은 체로 두기도 뭐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새하얀 벽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아니지 않나. 너무나도 하얗고 나름의 신식으로 다듬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니 정보화 도서관이나 콘텐츠 허브 등이 들어서 있었고, 고작 옥상에 정도의 층 정도야 전망대를 겸해 역사적 의의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분명 후대의 누군가는 원망하리라 싶다.

그렇게 치면 전반적으로 전야제도 많이 바뀐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 간간히 얘기를 듣는 것이 이것도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란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은 한결 같을 수 없고 그때의 유가족들도 점차 나이 들어 줄어들어간다. 그런 상황에서 광주의 518행사, 전야제 등에 있어 언제까지 슬프고 우울하고 비극적인 날로만 기억될 것인가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한다. 차라리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날로 정하되 방식을 바꾸어 공연도 하고 가요도 틀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관심 가지게끔 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광주 사람이라면, 특히나 지금처럼 광주에서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들게끔 된다.

이날 전일빌딩 1층에서 아는 작가님의 작업을 도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눴다. 광주 사람 입장에서도 왜 전야제가 점점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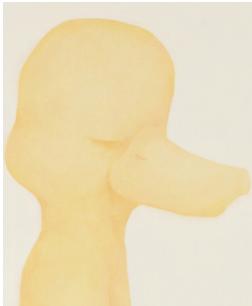
나 같은 외지인의 입장에서, 특히나 관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상 광주는 영원히 아픔과 상처의 지역으로 보여 지기를 바랄 지 모른다. 그것은 기만이기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 증인으로 남아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정작 내가 광주의 사람이고 앞으로도 광주에서 무엇인가 하려 한다면 더 이상 슬픔과 아픔만으로 이때를 기억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런 갈등들이 전야제의 모습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오월미술제> 출품 작품 중



리모델링 된 전일빌딩 옥상





작은 씨앗들

이 규 환
창작가

1

그 날은 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불쌍한 우리 아가.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잘 먹고 지낼까. 앞으로 힘든 세상을 홀로 견뎌 낼 너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구나. 내 품에서 살아가는 너희를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게 느껴지는구나. 이것만은 기억하렴. 꽃은 피울 거란다. 그날을 참고 기다리렴. 언젠가는.”

퍽 소리와 함께 내가 태어났을 때 공교롭게도 엄마는 내 옆에 힘없이 축 늘어져 죽어있었다. 엄마는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말라버린 보랏빛 꽃잎은 바싹 말라 곱고 예쁜 색을 다소 잊어버렸다. 늘씬하게 뻗어있던 줄기는 꼬부랑 말라 얼마나 큰 키를 가졌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별과 이슬을 힘껏 받아들이던 푸른 잎사귀는 주름에 새겨진 세월을 한 몸에 받아들여 가루가 되어 날아 가버렸다. 그래서 나의 엄마는 어떤 분이셨는지 알 겨를이 없었다. 오직 알 수 있었던 것은 밝을 아침이 되면 타들어 가는 몸뚱이와 어둠이 찾아오면 습기마저 얼어붙는 추위가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알들 속에 내가 묻혀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사막 한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을까? 높이를 알 수 없는 하늘 아래, 넓게 뻗은 사막 한가운데,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 씨앗이의 존재는 단지 그뿐이었다.

“그런 게 아니야. 모래는 매일 변화하고 있어. 봄 어제는 없었던 모래산이 저기 생겼어.”

씨앗이가 바라보는 곳에는 자신보다 수만 배는 큰 모래산이 생겨있었다. 어제는 낮은 구덩이가 파여있어기에 씨앗이는 모래 지평선을 한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저 산 위로 별들이 뜰 거야. 그럼 난 또 한없이 바라보겠지. 추위와 뜨거움은 싫지

만 매일 변하는 모래와 별들을 바라 볼 수 있어서 행복해.”

어둠이 찾아오면 모래알갱이의 수만큼 하늘에 별이 깔렸다. 씨앗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자신과 똑같은 작은 존재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니까. 바라보고 있으면 자신도 저 중에 하나가 될 거란 꿈을 꿀 수 있었으니까.

2

“오늘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씨앗이가 눈을 떴을 때 오늘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 이유는 몸이 크게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 땅이 일어서고 있어! ”

씨앗이의 눈으로는 화난 땅이 일어서 달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거센 바람이 씨앗이를 향해 불고 있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거친 바람은 처음이었다. 바람은 모래 알갱이를 머금고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 폭풍에 엄마의 메마른 몸은 펼떡거리며 날아가려 했지만 땅에 단단히 박혀 기이하게 서 있었다. 살아계실 적에는 척박한 땅에서 당당하게 태양에 맞서듯 서 있었으리라. 나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모래 폭풍에 휘말려 모래알과 뒤섞여 하늘을 날아올랐다.

날아오른 씨앗이는 모래들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높은 산이라고 생각했던 곳 역시 모래알갱이로 변하여 자신의 옆으로 다가왔다.

“안녕, 우리 매일 서로 바라 봤었지. 나는 널 보면서 매일 말을 걸었는데.”

모래산은 대답이 없었다. 그도 그렇게 모래인걸.

“이렇게 하늘에 있으니까, 나도 별이 된 것 같지 않아? ”

씨앗이는 혼잣말로 마치 별이 되었다고 기쁘게 말하였다. 하지만 오늘은 밤하늘도 보이지 않았고 땅도 보이지 않았다. 온 세상이 모래투성이였고 그저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을 뿐이었다. 씨앗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씨앗이가 정신이 들었을 때 세상은 침침하고 몸을 짓이기는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다.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이가 하나 없었다. 순식간에 자신이 알던 세계가 부서졌다. 그저 낙이었던 별 바라보기와 시시각각 변하는 모래산 바라보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중요한 건 씨앗이는 여기가 어디인지도 몰랐다. 하루가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고요했고 또 고요했다. 더는 생각할 거리가 없어지자 씨앗이

는 생각하기를 포기하려 했다.

“어차피 또 같은 내일일 것이잖아.”

씨앗이가 아직 씨앗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을 무렵, 엄마가 항상 이야기 했었던 이야기가 어둠속에서 기억이 났다.

“씨앗아 너는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야.”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 나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짹을 틔울 날이 올거야.”

씨앗이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중얼거렸다. 엄마가 자주 하던 말은 씨앗이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이었다.

“열심히 짹을 틔울 것만 생각해야지! ”

오늘도

“열심히 힘내자”

내년도

“그런데 짹이란 뭘까? ”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천천히 흘렀고, 타는 갈증에 몸부림치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사막에는 비가 몇 년간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앞으로도 언제 오는지 기약 없는 약속이 씨앗이를 지치게 만들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부질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래 봐야 씨앗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니까. 7년이 지나도 씨앗이는 아기였다. 시간이 흐른 것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나 아이로 멈춰 있었던 씨앗이에게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드리우고 있었다.

상상도 생각도 없는 공허한 나날이 지나갔다. 씨앗이는 자신이 좋아하던 밤하늘의 별도, 모래지평선도, 모래 폭포와 함께 날았던 날도 기억하지 못했다. 모래와 똑같이 딱딱한 껍질을 가진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쓸모라고는 없는 이름도 모르는 그 무엇. 그것이 씨앗이었다. 씨앗이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였을 때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마비된 듯이 경직되어 버렸다. 그리고 흔한 모래의 일부가 되었다.

분노의 불길이 스파크가 튀듯이 터졌다. 꺼져가던 생명은 분노로 다시 격하게 꿀렁거렸다.

“그래 이 모든 것은 엄마 때문이야. 엄마의 말은 거짓말이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

엄마가 씨앗이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희망은 고문이 되어 괴롭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할 수 없다고 괴롭혔다. 그렇게 희망은 씨앗이를 괴롭히는 고문에서 저주의 형태로 변해갔다. 엄마의 바람은 씨앗이에게 저주가 되었다. 바람대로 되지 못한 자신을 저주했다.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의 마지막 향기와 모습에 저주했다. 자신을 세상에 버려두고 죽어버린 엄마를 저주했다. 이런 지독한 세상에 낳아준 엄마를 저주했다. 영겁의 세월을 저주하며 시간을 보냈다. 남을 탓 하는 것만이 씨앗이가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양초의 파라핀이 다 타고 마지막 심지의 실이 가장 밝게 타오르듯, 씨앗이가 죽지 않게 붙잡아 주던 자아를 연료로 삼아 가장 밝게 타올랐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미워.”

“아... 아...”

“아... 어... 아...”

“아... 어... 으... 에...”

씨앗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4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야 일어나봐.”

툭 툭 투둑

“그만 자고 일어나보라니까?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씨앗이를 감싸고 있던 아래쪽 흙 바닥이 무너지며 새하얀 손이 들이밀고 올라왔다.

“어... 아... 으....으...”

얼마 동안 정신을 잃고 있던 것일까. 아직 씨앗이는 말이 돌아오지 않았고 정신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옆에서 수다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통에 씨앗이는 가까

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노란색의 반들반들한 동그란 씨앗이었고, 씨앗의 벌어진 틈새로 하얗고 조그마한 손이 나와 있었다. 씨앗이는 노란 씨앗에게 말했다.

“어...으... 그... 너...누...구야? ”

“나도 너랑 같은 씨앗인데. 누구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난 그냥 나인걸.”

씨앗이는 알 수 있었다. 자신과 같다고.

“나는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 줄 수 있니? ”

“너? 넌 검붉은 색의 주름진 씨앗인걸? ”

씨앗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검붉고 주름이 진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검붉은 색이구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기뻤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우리는 어디에도 스스로 갈 수 없잖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본능에 끌리는 대로 왔어. 오다 보니까 니가 있었을 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 못 하겠다는 말, 나도 이해해. 왜냐하면 나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

씨앗이는 노란 씨앗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도 슬슬 느낄 것 같은 데 아직 모르겠니? ”

“뭘 말이야?

“모든 것이 떨면서 울리고 있어. 너도 이제 알아야만 해.”

노란 씨앗의 말이 끝나마자 세상이 무너지듯 떨림이 시작되었다. 씨앗이의 머리 위로 모래알갱이들이 투두투두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얼마나 큰 소리를 내고 있었는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진동이었다. 대지가, 세상이 울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인가. 축축한 습기가 내려들고 있었다. 정말 만물이 울고 있는 걸까? 생각이 들었다.

“우린 이제 아이가 아니게 될 거야.”

5

‘그날을 참고 기다리렴.’

“엄마? ”

씨앗이는 자신에게서 엄마의 향을 미세하게나마 느꼈다. 엄마에게 느꼈던 풋풋한

향의 기억을 떠올렸다.

‘피울 거란다, 기억하렴.’

씨앗이가 엄마 안에서 커가고 있을 때, 엄마가 부드럽게 들려주었던 말의 기억이 씨앗 주머니에서 터지듯이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뒤로 흘러가듯 되집으며 흘러갔다.

‘함께하고 싶지만, 오랫동안’

“정신 차려! 검붉은 씨앗!”

씨앗이는 노란 씨앗이 외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정신 차려야 해! 이제부터 위험하다고!”

“무슨 말이야. 하나도 이해가 안가, 모르겠어. 알기 쉽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해줄 수 없어. 그건 오직 너만이 알고 있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다니. 무슨 말이야. 난 모르겠다고”

“아니야, 넌 알고 있어!”

씨앗이는 노란 씨앗이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씨앗이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몰랐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좋아했던 별과 바람과 모래산 그리고 엄마.

“엄마!”

씨앗이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오랫동안 미워했을 엄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아파...”

“그 감정 나도 이해해. 그러니까 넌 알고 있는 거야!”

노란 씨앗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혼란스럽게 했다. 그 순간.

“아악!”

씨앗이의 몸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개속)



작은 것들에게

이은우

그림 그리는 사람 /
본업과 부업 사이 어딘가에
서 표류 중

1. 높이 높이 / 어떤 밤

길가에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나무를 주욱 주시하고 있었다. 주변의 건물보다 훨씬 키가 큰 이 나무들은 회색조의 간판과 온갖 인도의 장치들 사이로 무성한 이파리를 흘날리며 길쭉한 자태를 뽐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것들 사이에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꽤나 어색하게 느껴졌으나 그럼에도 시선을 두게 되었다.

높이 높이



어떤 밤



2. 지렁이 모자를 쓴 꼬깔콘 / 흰 직사각형 벌레들에 대한 짧은 메모

산책을 꽤나 좋아하는데 목적지 없이 유유자적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주변을 이리 저리 둘러보며 천천히 돌아 다니다보면 뜻밖의 재밌는 것들을 만나고 누군가와 수다를 떨며 지나가다가도 눈에 밟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소소한 것에서 안정을 느낀다.

지렁이 모자를 쓴 꼬깔콘



흰 직사각형 벌레들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_2

석민정

삼십대/

문화예술인/

교습소운영

Ep. 5. 2016 무창포의 여름

26, 29살 비루했던 우리 생활에 남들과 같은 번듯한 여행은 가기가 힘들었다.

무창포가 좋더라.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와 말하는 한 살 터울 언니의 말은
그 해 여름 우리를 기차에 태웠다.

처음 가는 여행.

“여행 가서 너한테 정식으로 프러포즈 할 거야”

귀엽게 내뱉는 그 아이의 말을 철썩같이 믿으며……

그 아이와 처음으로 맞춘 유니클로 연두색 커플티셔츠 ‘미스터 그리디’ (몇 달 전
걸례로 쓰고 버렸다.)

우리 얼굴에 놀랍게도 잘 어울렸던 싸구려 선글라스.

나는 이번 여행이 내 인생 최고의 이벤트가 될 거라 믿었다.

기차타고 버스타고 도착한 무창포해변에서 나는 또 한 번 오늘은 선택받은 날이라
고 생각하게 된다.

영화 트루먼쇼의 트루먼이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성수기가 다 지나 사람도 없는 그 해변에 뜯금없이 할머니 한 분이 강아지인형을 팔
고 계신것이다. (다들 아실 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전원을 키면 왕! 왕! 왕! 왕! 대며 뛰어다니는 장난감 강아지가 있다.)

나는 한동안 그 강아지장난감이 갖고싶어, 그 애에게 그걸 꼭 선물해달라고 말까지
여러번 해놓았었다.

가슴이 두근두근…

나는 밤이 기다려졌다.

수영을 하고, 고기도 좀 먹고, 해산물도 좀 먹고.

싸구려 와인도 먹었다.

술만 먹으면 졸려지는 이 아이는 이만 잠자리에 들려고 하나보다.

“오늘 나한테 뭐 할 말없어? ”

“응 뭐가? …”

“나한테 오늘 프러포즈 한다며”

“아… 내가 그랬나? …”

장난인줄 알았는데 그 애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쌓아뒀던 울분이 터졌다.

내가 얼마나 기대했었는지.

해변에 그 강아지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그리고

울분은 터지다 못해 지난 일들도 끄집어내와 그 애를 공격했다.

“말을 좀 해보라고! ”

“잠깐만 생각중이야….”

“넌 정말 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니? ”

“좀! 생각 좀 할게! ”

그제서야 나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생각하는 그 애를 기다렸다.

드르렁 드르렁

나는 그 애가 나를 놀린다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그냥 자는 거였다.

(하…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난다.)

나는 너무 놀라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막 났다.

그 애가 코 고는걸 보고 눈치 없이 터진 내 웃음에 그 날 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나는 그렇게 속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었던 것 같다.

행복해야 할 우리 여행을 망칠 수가 없었다.

차라리 그 긴장된 분위기에 코를 골아 줘 고맙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 날의 기분은 우리의 레파토리가 되었다.

나는 혼자 기대하고, 실망하고, 서운하다가 그냥 포기한다.

그 애는 아무생각이 없다가, 당황했다가, 화도 좀 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아직도 회자되는 우리의 첫 여름여행

무창포.

26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렸던 내가 혼자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래도 그 애를 너

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순간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싶었던 그 어린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

Ep. 6. 냉장고는 너 해, 프로젝터는 내가 가진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그 애의 집으로 들어갈 때 거의 모든 짐을 벼렸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언니와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고,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전까지 모텔을 전전할 수도 없었다.

첫날에는 엄마를 보러 갔다.

뜬금없이 왜 왔냐는 엄마의 말을 가볍게 흘리며 TV에 열중했다.

다음 날 퇴근 후 그 애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덤덤했고 굳건했다.

진짜 이별이구나.

나는 온갖 부동산 어플을 다운받고 방을 찾았다.

집을 구하는 것은 자신 있는 분야였다.

항상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 살았던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이 설레고 흥미로웠기 때문에 나는 집을 구하는 과정을 굉장히 즐겼다.

근데 이번만큼은 서려움의 눈물이 흘렀다.

그 애가 있는 2층방 밑에서 나는 내가 너무 가엽고 그 애가 너무 미워서 줄줄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훔치며, 홀로 씩씩거렸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온 아이.

정말 다시는, 죽을 때까지 보지 않으리.

너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집을 구하는 데에 보름의 시간이 걸렸다.

그 동안 퇴근 후 집에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너는 네 집이지만 나는 이 집에 오는 게 고역이야. 널 보는 것도, 퇴근 후 이 집에 오는 것도 지옥 같아’

나는 그 애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려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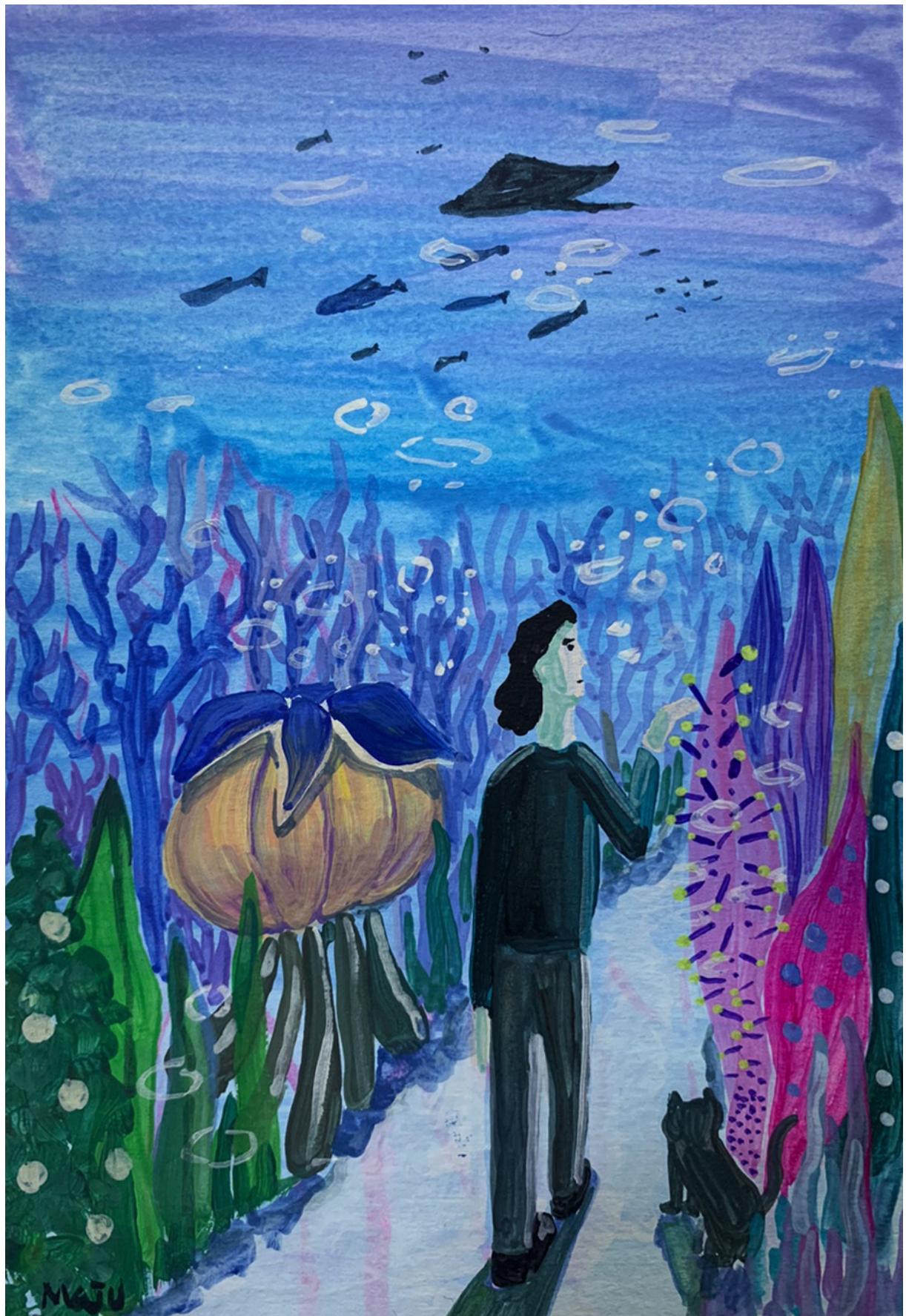
매일 밤 그 애는 자기 방의 문을 닫고 앉아 컴퓨터를 했고, 나는 허름한 테라스에 앉아 홀로 와인을 마셨다.

서로 지치는 8월이었다.

8월 20일 나는 간소한 짐을 싸 이사를 나갔다.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이 작은 살림에도 재산분할이 필요했다.

건강한 요리 해먹자고 산 50만원짜리 냉장고, 함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마련한 프로젝터.



‘냉장고는 너 해, 프로젝터는 내가 가져간다.’

애초에 새 냉장고를 원치 않은 그 애는 비닐도 다 뜯지 않은 새 냉장고를 떠안았다.
코미디다.

코미디지만 그 애는 짐을 싣고, 옮기고, 짐을 정리하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코미디지만 그 애가 나를 새 집에 두고 돌아가기 전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20대때나 살던 5평 원룸에 나는 우리의 고양이와 둘이 살게 되었다.

Ep. 7 능력은 없지만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부모님이 가끔 이야기해주시던 일화가 있다.

가난했던 신혼시절. 아빠가 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좋은 절구통이 버려져 있어 주워
왔는데

그 날 밤 엄마는 길에 좋은 절굿공이가 버려져 주워왔다며 꺼냈다고 한다.

이걸 바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걸까?

둘이 있으면 없는 살림도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애도 그랬다.

그 애는 이상한 능력이 있었다.

적당한 때에 알맞은 것을 잘 줍는 능력.

그 애는 그렇게 소소한 운이 좋았다.

로즈데이때는 장미를 주워왔고

내가 운동화가 필요하면 운동화를 주워왔다.

자전거가 필요하면 자전거를 주워 왔고

옷을 잘 사지 않는 나를 위해 누나의 고가의 옷을 몰래 훔쳐오고

나한테 어울릴 누나의 신발을 몰래 들고 왔다.

나는 요즘 -가 필요해

하고 말하면 그 애는 몇 일 안에 꼭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가 없으면 잊몸으로.

사줄 능력이 없으면 주워오고 만들어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는 온통 나 잘되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이런 그 애가 능력이 없던 있던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 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젊으실 적 한껏 고생하신 엄마를 보며,

그 비싸지도 않은 절굿공이 길가에서 주워올 수밖에 없던 엄마.

그리고 그걸 보며 속없이 좋아하기만 하셨을 아빠.

처음부터 가난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Ep.8 이별 ver. 2021 이후

10년 동안 가족보다 그 애를 더 많이 봤다. 우리는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고, 과장 좀 보태 머리카락 개수 까지 알고 있었다.

함께한 10년 동안 오래 떨어져있어 밧자 겨우 일주일이었다.

나는 그 애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서 또 없으면 그렇게 보고 싶었다.

이번 이별은 진짜 마지막이었다.

서로 울면서 안녕까지 했고. 원룸으로 쫓겨난 마당에 다시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한 몇 일간은 출근길에, 퇴근길에, 집에서 혼자 티비를 볼때도 눈물이 났다.

그 후에는 괜찮아지는듯 했다. 새로운 집도, 동네도, 내 가족 고양이도 다 좋았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이번년도에- 결혼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수도.

그게 진짜 내 운명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 전시는 어떻게 할거야?

작년부터 약속되었던 둘의 2인전이 코앞이었다.

우리는 전시를 빌미로 3주 만에 다시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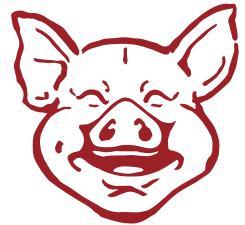
일부러 만들어내는 날 서고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꼭 해야 할 내용만이 오가는 통화였지만

그 간의 외로움이 사무치게 밀려와 안부를 묻고 아는 체를 하고 싶었다.

그럴수록 나는 더 목소리에 짜증을 섞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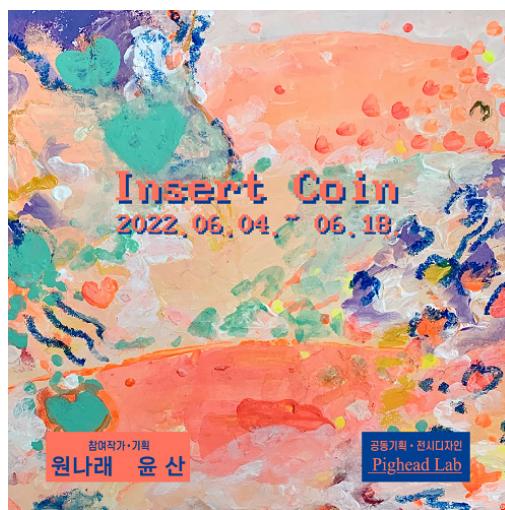


<Insert Coin> 展 원나래, 윤산 2인전
2022. 6. 4 - 18

피그헤드랩
[www.pigheadlab.
com](http://www.pigheadlab.com)

지금이야 워낙 3D그래픽이 발전하여 실사와 같은 이미지가 익숙하지만, 내가 어릴 때에는 본 총 천연색이 번쩍이는 빠르고 경쾌한 오락실의 화면들이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 일명 도트그래픽이라 하여 코드화 된 색상들의 배열로 이미지를 구성하였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화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의 무궁무진한 연구들을 해왔다고 한다. 가령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흑과 백을 빠르게 대치시킴으로써 번쩍임을 구현하거나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 입체감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심지어 당시 모니터의 기계적 한계를 역으로 이용해 명암대비를 만들어 내기도 했단다. 개발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짜내 당대의 화려함을 만들어낸 만큼 많은 이들이 그 이미지들에 흠뻑 빠졌고, 나 역시 할머니 용돈을 훔쳐 오락실에 쏟아 넣은 어릴 적 기억이 난다.

원나래, 윤산 작가는 기본적으로 회화를 베이스로 하는 작가들인데 터닝포인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만 하여도 사실 어떤 공통점을 찾아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엮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팀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고 그 과정의 결과물들이 엮어서 나온 <Insert Coin> 전의 경우 결코 우연이라 말하기엔 상당한 개성을 선보인다. 그 둘의 공동작업들을 보면 나는 오락실의 어떤 도상들이 떠올랐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이 둘이 스스로 작업을 제작하는 방식, 그리고 상대방의 그림을 연구하는 과정들이 꼭 그것과 닮은 것이다. 어떤 제한



된 감성과 기술력 사이에서 최대한 나름의 방식을 통해 이미지들을 구축해내고 빠르게 재생산되며, 그것들을 얇은 대신 방대하게 복사되고 그림마다의 이야기들은 마치 코드처럼 할당된다.

이 지점은 내가 언젠가 더 길고 깊게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이것이 근래의 유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일명 디지털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이들에게 버릇처럼 새겨진 어떠한 지점인데 우리가 근래까지 ‘레트로’라고도 불리우는 그 감성이, 지금의 특정 세대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앞서 말한 것처럼 회화를 채우고 만들어내는 방식이 일종의 디지털 코드가 생산되는 것처럼, 회화가 쌓이고 구성되는 방식에서 묘한 가벼움과 속도감, 그리고 가치가 부여지는 과정의 변화를 느끼고는 한다.

아무튼 그러한 지점에서 <Insert Coin>은 두 작가가 스스로 기획하고 과제를 설정하여 제작한 전시이다. 작품 중 두 사람이 서로의 실패작을 교환하여 재제작하는 과정은, 사실 새롭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회화를 분해하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상당히 신선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회화를 소스의 차원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서로의 작품에서 의미를 배제하고 도상의 인지만으로 그것을 다루었다는 것인데, 좀더 쉽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읽어내며 자신들이 사용하는 만큼만 덜어내고 복사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프로그램들은 서로의 역할을 상당수 알고 있지만 굳이 서로가 서로를 ‘공감’ 할 필요가 없고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기술적인 재생산이다.

가령 원나래의 경우 윤산의 이미지 한점을 그대로 ‘보이는 것의 배열’로만 규정한

<Insert Coin> 전시 풍경



다. 그리고 절제된 색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의 코드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이미지가 ‘보이는 방식’을 재현한다. 재현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까지나 원본 이미지에 대한 반영인 것은 맞다. 윤산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반영이 극소화 되고 재생산의 과정으로만 이미지를 다룬다. 기존의 것을 굳이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바꿔 재사용할 의향이 없다. 원본이 존재하는 그 방식에서 레이어를 하나 덧대어 자신의 코드를 배치한다. 그 코드를 배치하는 것에는 원본의 존재여부와 가치가 그다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철저히 각자 자기들 밖에 모르는 그림이지만, 그 것은 어떤 매너나 이기심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애초에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여기에서 상당히 디지털 적인 어떤 과정들을 떠올려본다.

물론 나는 두 작가가 이것을 의도하였고 철저한 계산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우연히 그것이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두 작가의 만남이 근래의 어떤 생각들, 특히 내가 관심 갖는 어떠한 특정 세대들의 창작과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의 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Insert Coin>의 제목은 두 작가가 각자 나름의 사연들을 바탕으로 붙인 제목이기는 하다. 그러나 나는 전시의 설치를 마치고나서 어찌하던 간에 앞서 실컷 얘기한 것처럼 두 작가가 속한 특정 세대의 이미지 제작 방식을 비유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연속적인 이미지 연구의 과정을 의미하는 제목이라 생각해본다. 동전을 넣는다는 것은 그러한 이미지들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인 것이며, 그 이미지들은 코드화되어 계속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둘, 각자의 코드는 그렇게 계속 세상을 분해하며 제작되고 있다.

<Insert Coin> 전시 풍경



이 페이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이면 대체로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기록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하겠습니다.

pigheadlab@gmail.com

01082339033

A4, 1~2페이지 내외

혹은 그 이상

어차피 적당히 편집함



전태일기념관 시각예술작품 공모

평화를
준수하라

전태일기념관 1층 시민전시장에서
평화를 주제로 전시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공 모 명 평화를 준수하라

공모주제 평화를 주제로한 시각예술

공모소재 사진, 그림(회화, 드로잉, 디지털아트 등), 미디어아트 등

당선작 지원사항 1_10~11월 전태일기념관 작품 전시 및 소도록 제작

2_당선작 중 하나의 작품을 선정하여 전태일기념관

외벽갤러리 대형 걸개그림 전시 (8~11월 진행 예정/작품 대여료 지급)

- ▶ 접수서류 : 작품, 작품설명서
 - 작품설명서: 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
-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 00accustic@taeil.org
- ▶ 응모자격 : 누구나
- ▶ 문 의 : 02-318-0904

- ▶ 접수기간 : 2022.6.22.(수)~7.19.(화) 18시
- ▶ 심 사 : 2022.7.20.(수)~7.27.(수)
- ▶ 결과발표 : 2022.7.28.(목) 전태일기념관 홈페이지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2. 06, 두번째

발행인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6월 참여 필진 : 석민정, 손승범, 이규환, 오종원, 이은우

www.pighaedlab.com